

Joris Laarman

요리스 라만



Bone Chair
2006
Aluminum
45 x 77 x 76 cm
Photo by Jon Lam, NYC
Courtesy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2011년 12월 13일 - 2012년 1월 20일

○ 관람 안내

전 시 작 가: 요리스 라만 Joris Laarman (Dutch, 1979-)

전 시 제 목: Joris Laarman

전 시 일 정: 2011. 12. 13 - 2012. 1. 20

전 시 장 소: 국제갤러리 1관 1, 2층 (문의: 02-735-8449)

개 관 시 간: 월요일-토요일: 10am - 6pm, 일요일: 10am - 5pm

○ 전시개요

국제갤러리는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네덜란드 디자이너 요리스 라만의 개인전을 개최한다. 라만은 본 체어(Bone Chair), 스타링 테이블(Starlings table) 작품과 같이 단아한 선과 도발적인 형태가 만들어내는 강렬하면서도 섬세한 디자인을 선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디자인과 제작과정에서 과감한 시도를 함으로써 새로운 트렌드를 이끌며 호평을 얻고 있다. 라만의 디자인은 혁신성과 전통성을 한데 아우르는데, 이러한 그의 작업은 디테일에 대한 예리한 면모와 장인정신을 고수하는 동시에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는 데에 기반을 두고 있다.

국제갤러리를 통해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되는 라만의 작품은 작가의 작업세계를 조망할 수 있는 총 23점의 작품들로 구성된다. 본관 1층 중앙홀에는 그의 대표적인 작품 본 체어(Bone Chair), 본 셰즈(Bone Chaise)를 비롯하여 본 암체어(Bone Armchair), 본 락커(Bone Rocker), 브랜치 북셀브(Branch Bookshelf), 브릿지 테이블(Bridge Table) 등 2006년부터 2010년 사이에 제작된 에디션 작품 6점을 선보이고, 2층 전시장에는 2010년 제작된 잎 테이블(Leaf Table) 1점과 올해의 신작 포레스트 테이블(Forest Table) 시리즈 16점이 전시될 예정이다.

○ 작품세계

*“자연의 섭리는 내 작업의 원천이다
Using mother nature’s underlying codes”
- 요리스 라만 -*

요리스 라만은 2008년 네덜란드 에인트호번 아카데미를 졸업한 직후, 뉴욕현대미술관(MoMA)에서 열린 ‘디자인과 유연한 정신 Design and the Elastic Mind’ 전을 통해 본 체어(Bone Chair)와 본 셰즈(Bone Chaise)를 선보였다. 전시된 의자 작품은 젊은 작가로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뉴욕현대미술관에 영구 소장되는 영예를 안았다. 요리스 라만이 획기적인 디자이너로 성장한 배경에는 그의 폭넓은 관심사와 더불어 개념이나 디자인 형식에 얽매이지 않으려는 작가의 확고한 의지가 자리하고 있다. 그의 작업은 최첨단으로 진행되는 연구과정과 3차원 모델링 기술을 비롯하여, 괄목할 만한 성공을 거둔 하이브리드 접근 방식으로 창조된 생명과학을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이 같은 섬세한 작업의 결과물은 전시작품 본 체어(Bone Chair)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라만은 자연적인 성장을 거듭하는 뼈, 나무 등의 비율을 모델로 하여, 컴퓨터 디자인으로 적용시키고 새로운 알고리즘을 생성하는 작업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알고리즘은 원래 독일의 자동차 산업에서 이용하였던 것인데, 재료의 할당을 최적화하고 일련의 과정을 최소화하여 무게감과 안정성 얻음으로써 단순하면서 강렬한 디자인으로 실현시킨 것이다.

요리스 라만의 대표적인 작품 본 체어(Bone Chair)와 본 셰즈(Bone Chaise) 시리즈를 성공으로 이끈 요인은 작품에서 느껴지는 단아한 선적 요소와 강하고 도발적인 형태가 한데 어우러지는 데에 있다. 테크놀로지에 대한 그의 관심과 더불어 제작과정의 매우 복합적인 방식을 거쳐 라만의 의자 작품은 완성된다. 그의 아이디어는 이후 유기체의 본질과 조화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디지털 프로세스와 전통성에 대한 영감을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그의 작업에 대해 뉴욕현대미술관 디자인 건축분야 수석 큐레이터인 파올라 안토넬리(Paola Antonelli)는 “라만은 혁신적인 역량과 아르누보로 회기되는 ‘유기적 전통’을 반영한 획기적인 디자이너다.” 라고 언급하기에 이른다.

요리스 라만의 디자인은 고도의 기술을 요할 뿐만 아니라 수작업을 통해 정교하게 이루어진 회화적 요소와 조각적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그는 정제된 미학과 기존의 개념을 타파한 패러다임을 절묘하게 어우러지게 함으로써 국제적인 작가로 자리매김하였고, 이는 작품을 대하는 라만의 작업방식이 인정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라만은 초기에 이루어낸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실험과 시행착오를 겪으며 작업에 전념하고 있다. 본인의 작업실을 ‘요리스 라만 실험실(Lab)’이라고 지칭한 그는 “과학자가 예술가의 정서적 창의성과 자유의지를 활용하고, 예술가가 과학자의 규율과 기술을 적극 활용한다면 훌륭한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라만의 생각은 새롭고 강렬한 아이디어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의 작업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이다.

요리스 라만의 스튜디오는 그의 지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실험실로써, 작업을 대하는 작가의 섬세한 면모를 읽을 수 있다. 월 스트리트 저널은 라만의 이러한 작업세계를 높이 평가하여 2011년부터 창립된 ‘올해의 혁신가 상’을 수여하기도 하였다. 월 스트리트 저널은 그의 수상을 발표하면서 “라만의 작업은 비가시적인 과학의 논리와 디자인적 장식성을 고르게 융화한” 작품이라고 말하며, 그는 “과감하고 새로운 미학을 로봇과 3D-프린터로 적절하게 접목시킨” 작가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라만을 창의적으로 문제를 풀어내고 미학적 혁신을 이룬 중요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 작가 소개

요리스 라만은 1979년 네덜란드에서 태어났다. 그는 디자인 아카데미 에인트호번에서 수학하였고 2003년 수석으로 졸업하였다. 그는 재학시절 열파장 라디에이터(Heatwave Radiator)를 제작하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였고, 이를 계기로 쿠퍼-휴이트(Cooper-Hewitt, National Design Museum), 프랑스 현대미술진흥 지방정부기금(Fonds national d'art contemporain)에서 그의 작품을 소장하였다. 라만은 2004년 월페이퍼 매거진에서 주관하는 ‘올해의 젊은 디자이너’상을 수상하였고, 같은 해에 그 만의 스튜디오와 실험실(Lab)을 설립하기에 이른다. 주요 수상경력으로는 레드 닷 디자인 어워드(2006), 운 어워드(2007), 국제 엘르 데코 어워드(2008), 그리고 앞서 언급한 월 스트리트 저널 주관으로 이루어진 ‘올해의 혁신가 상’(2011) 등을 들 수 있다. 그는 플로스(Flos), 비트라(Vitra), 스와로브스키(Swarovski)를 비롯하여 드룩(Droog)과 협업하였다.

요리스 라만의 작품은 국제적인 미술관과 주요 공공기관에서 다수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 퐁피두 센터, 뉴욕현대미술관, 암스테르담 시립미술관과 그로닝겐 미술관,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 애틀랜타 하이 뮤지엄, 휴스턴 뮤지엄 오브 파인 아트, 함부르크 미술 공예 박물관, 독일 비트라 디자인 뮤지엄 등이 있다. 작가는 현재 네덜란드에서 거주하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아트선재센터 강의

일 시: 2011.12.12(월) 오후 2 - 4시

장 소: 아트선재센터 B1 아트홀

강연자: 요리스 라만(Joris Laarman), Gijs van der Velden and Tim Geurtjens

문 의: 국제갤러리 02-735-8449



Joris Laarman Photo by Steve Benisty

디지털 공예 Digital Crafts

요리스 라만 랩(Joris Laarman Lab)과 메이크미(MakeMe) 소개: 20세기 초 모더니스트 선구자들은 산업생산 방식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 미학으로 가치있게 발전시켰다. 오늘날 디지털화 된 디자인 도구와 제조 영역은 디자인에 대한 우리의 개념을 변화시켰으며, 작가들이 디지털 혁명의 무한히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며 문화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요리스 라만 랩은 디지털 시대의 첨단 기술 개발과 장인정신이 융합된 하이브리드 모델의 가능성을 확신한다. 그리고 실현 가능한 새로운 디자인 플랫폼 메이크미(MakeMe)는 디자인 세계를 위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생산해 냄으로써 이러한 것들을 제공할 것이다.

○ 전시작품 이미지 & 캡션

이미지를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아래의 크레딧 정보를 명시해야 합니다.



Bone Chair
2006
Aluminum
45 x77 x76 cm
Photo by Jon Lam, NYC
Courtesy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Bone Armchair
2008
carrara marble/ resin
79.2 x 99 x 74 cm
Photo by Jon Lam, NYC
Courtesy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 전시작품 이미지 & 캡션

이미지를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아래의 크레딧 정보를 명시해야 합니다.



Bridge Table
2010
Aluminum and Tungsten Carbide
75 x 380 x 120 cm
Photo by Jon Lam, NYC
Courtesy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Bone Chaise
2006
Polyurethane-based resin
148 x 77.3 x 103 cm
Photo by Jon Lam, NYC
Courtesy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 전시작품 이미지 & 캡션

이미지를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아래의 크레딧 정보를 명시해야 합니다.



Branch Bookshelf
2010
Bronze
193 x 274.3 x 99.1 cm
Photo by Jon Lam, NYC
Courtesy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Leaf Table
2010
Resin, Steel and Aluminum
73 x 201.9 x 201.9 cm
Photo by Jon Lam, NYC
Courtesy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 전시작품 이미지 & 캡션

이미지를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아래의 크레딧 정보를 명시해야 합니다.



Forest Table

Photo by Casper Rila

Courtesy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 전시작품 이미지 & 캡션

이미지를 사용하실 경우, **반드시** 아래의 크레딧 정보를 명시해야 합니다.



Installation view at Kukje Gallery

© Kukje Gallery